

일반
논문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 운동과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 정치*

이지영 _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논문요약

본 글은 샌프란시스코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 운동을 자이니치 코리안 단체 ‘Eclipse Rising(이하 ER)’의 정체성 정치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기림비는 150개 단체의 합의와 지지, 17개 정상단체(peak association)가 발족한 ‘위안부’ 정의연대의 인종, 민족, 국가, 젠더, 계급을 넘어서 초국적이고 범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건립되었다. 그러한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일본 우파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극복하고 연대를 이어나가는 데는 ER의 역할이 컸다. ER은 자이니치 코리안 3세들로 조직된 단체로 자신들의 다중적 정체성 가운데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며 샌프란시스코시의 지역성과 진보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단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이니치 정체성을 실행하며 차별과 피해자성을 넘어 사회 정의로 전환시켜 갔다.

이러한 ER은 정체성 정치에 있어 다언어 능력을 구사하며 기림비 건립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을 구축하고 유연하게 일본계 미국인 단체뿐 아니라 일본 국내 단체들과 연대하며 국적·지역의 배타적 경계를 넘어 기림비 건립운동에 지지를 동원했다. 이러한 ER의 정체성 정치는 일본 사회로의 귀환과 동화, 전 세계로의 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9712)

이주가 자이니치 코리안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것임을 제시한다. 향후 ER의 다른 회원과 ER 이외의 자이니치 코리안 단체에 대한 심층 면접과 구술사 연구를 이어가며 21세기 탈경계의 시대, 글로벌화와 로컬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화의 시대에 자이니치 코리안의 역동적인 삶과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주요어:**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자이니치 코리안, 일본의 우파, 정체성 정치, 초국적 연대

1. 들어가며

2011년 일본군 '위안부'(이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1,000차 수요 집회를 기념하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이하 기림비)인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이후 기림비는 2019년 현재 국내에 80개 이상이 건립되었으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중국, 특히 2016년 이후 호주, 독일, 대만, 홍콩, 필리핀 등에서 연이어 건립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후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넘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전시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이슈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나타낸다(이지영 2017, 77-103).

해외에서 가장 많은 기림비가 설립된 곳이 미국이다. 세계 최초로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미국의 각지에서는 이 결의안을 형해화하

〈사진 1〉 '여성 강인함의 기둥'



자료: 필자 촬영(2019/07/03)

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림비가 세워지고 있다. 2010년 미 동부 뉴저지(New Jersey)주 팰리세이즈파크(Palisades Park)의 공공도서관 부지에 기림비가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13곳에 다양한 기림비가 설치되었다(이지영 2019, 62). 이 가운데 2017년 9월 22일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의 세인트메리스퀘어(St. Mary's Square)에 11번째로 건립된 기림비가 〈사진 1〉의 '여성 강인함의 기둥(Women's Column of Strength)'이다.

한국, 중국, 필리핀의 소녀가 손을 잡고 서 있고, 그것을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이 바라보는 모습의 이 기림비가 건립되기까지의 과정이 지역 언론뿐 아니라 일본, 미국의 주류 언론과 해외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2007년 미 하원에서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이후 다시금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시의 기림비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가 인접해 있어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의 높은 인지도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림비 건립 과정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기림비 건립은 일본 국내 우파와 재미 일본인 ‘신 1세’의 건립 반대 운동, 그리고 일본 정부의 전면적인 반대 운동 지원 속에서 인종, 지향하는 목적, 활동 방식이 다양한 17개 정상단체의 연대와 샌프란시스코 내 150개 단체의 지지로 가능했던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여성 강인함의 기둥’ 건립 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자이니치 코리안 단체 ‘Eclipse Rising(이하 ER)’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원인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한반도 출신자 및 그들의 후손을 명명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적을 하나의 기준으로 한국 국적자는 재일(在日) 한국인, 북한 국적자는 재일 조선인, 그리고 분단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 양자를 포함하는 재일 한인, 재일 코리안, 자이니치 코리안 등의 명칭이 연구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山泰幸 2017, 17-18). 본 글에서는 자이니치 코리안을 사용한다. 자이니치는 재일(在日)의 일본어로 ‘일본에 있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자이니치는 중립적인 용어가 아닌 식

민지였던 한반도 출신자와 그 자손을 일본인과 구분하고 법적 지위와 처우에 있어서 차별하는 하나의 코드로서 작용해 왔다. 본 글에서 자이니치 코리안은 한반도에 민족적 유래를 지닌 재일 조선인·한국인의 존재론적 위치를 아우르며 또한 국적·지역의 배타적 경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이니치 코리안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원인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코리안뿐 아니라 일본에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고 생활하다가 다시 세계 각지로 재이주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코리안과 그 후손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R은 일본에서 주로 샌프란시스코로 재이주한 코리안 2세의 자녀나 3세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단체이다. 이 자이니치 코리안 단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미 한국인, 재미 코리안, 재미 일본인이 아닌 자이니치 코리안으로 규정하고 확립하며 일본 우파와 일본 정부의 기림비 건립 반대 운동을 극복하고 연대를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글은 ER이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건립 운동에서 어떻게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행하며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편적 가치로 전환, 확대시켜 나갔는지 그 정체성 정치의 일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1)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한국뿐 아니라 해외로 기림비 건립이 확산되면서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부분이 집단 기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집단의 기억이 어떻게 기림비를 통해 표상되고 형상화되는지, 더 나아가 기림비 건립 운동에서 운동의 응집력과 정당성 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적 차원, 정치적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우선 필리핀의 기림비를 대상으로 한국의 소녀상과 비교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표상되는 '위안부' 기억에 담긴 지역성을 논한 것이 있다(김동엽 2018). 또한 소녀상을 집단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로 분석하며 사회적 기억의 매개체, 문화적 매개체로서의 그 역할을 강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송진원·안병학 2019). 정치적 차원에서는 먼저 미국의 기림비를 사례로 기억의 초국적 이동과 기억의 이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사회에서 민족을 넘어서 '위안부' 기억이 어떻게 집단의 기억으로 형성되는지와 그 과정에서 한인 이민자 집단이 어떠한 역할과 개입을 했는지 분석한 것이 있다(윤지환 2018). 또한 소녀상을 통해 '위안부' 기억이 경관으로 재현될 때 저항의 응집력과 도덕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연구도 들 수 있다(윤지환 2019). 호주 소녀상을 사례로 검토한 연구에서는 도덕성과 공감에 기반한 '코스모폴리탄' 기억의 정치와 호주 한인들의 초국적 민족주의의 다면성과 복잡성이 분석되었다(문경희 2018). 이 밖에도

기림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소녀상과 소녀 이미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한국과 일본의 여성 연구자와 한일 사회의 정치를 내셔널리즘과 식민주의를 바탕으로 고찰한 것이 있다(김부자 2017).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내 기림비 건립에 대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인식과 재미 한인사회의 공공성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허성태·임영언 2016). 최근의 연구로는 글렌데일시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그 건립을 둘러싼 추진 운동뿐 아니라 일본 우파의 주장과 반대 운동을 ‘역사전(歷史戰)’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한 것도 있다(이지영 2019).

본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시의 기림비 건립 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위안부’와 기림비 관련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2) 정체성 정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제2차 세계대전 귀환병을 대상으로 귀환병의 자아의 상실, 약화를 ‘정체성의 위기’로 분석한 심리사회학적 연구에서 출발한다. 이후 정치심리학자들에 의해 정체성은 행위자의 선택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나는 누구이다’라는 주관적 인식으로서 발견된다. 정체성 문제에 대해 심리학과 분리된 정치적 분석이 시작된 것은 신사회운동의 맥락에서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후기 산업사회의 변화 속에서 계급이 약화되면서 계급이 아닌 다른 사회적 속성, 즉 젠더, 인종, 성적 지향성 등에 근거한 신사회운동과 함께 정체성

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전개되었다. 한 사회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자원과 평등을 둘러싼 갈등과 위기, 인정 획득, 그에 수반하는 귀속과 배제의 문제들은 정체성에 관한 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가시적이고 명확한 이익이나 선호 이전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세계와 우리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그 주체성은 타자와의 복잡한 관계성 속에서 권력과 자원의 배분, 인정 획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Agius and Keep 2018, 1-2).

한편 국가를 의인화하여 분석의 기본 단위로 다루는 국제정치에서는 국가의 권력과 이익이 국가의 선택과 행위, 그 결과 전개되는 국가 간 다양한 정치적 현상의 설명 변수로 중시되어 왔고, 국가의 정체성은 소여(所與)로 간주되어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시각이 주류였다.

그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심화되고 확산되면서 대규모 국제 이주가 증가하였다. 이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적 집단들이 구성하는 하부 국가적 정체성을 등장시켰고, 이 하부 국가적 정체성은 한 국가 내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자원과 인정 획득을 위해 정체성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환경, 인권, 군축, 평화 등 보편적 가치 지향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초국가적 연대의 구성 능력이 증가하면서 국경, 인종, 민족, 문화적 집단 간 차이를 초월한 범세계적 정체성이 계발되고 있다(헌팅턴 2017, 30-31).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상실된 동질성으로 회귀하려는 욕망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질성에 대한 욕망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와 양극화, 가중되는 경제적 난민의 유입 속에서 유럽과 북미의 새로운 인종주의, 우파, 포퓰리즘의 등장을 가져왔다. 2016년의 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은 다양한 하부 국가적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의 물음을 국가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었다. 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화의 심화 속에 내용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각국의 정책 기조였던 이민과 경제적 난민의 수용, 포용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항하는 ‘백인 정체성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Agius and Keep 2018, 3).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정체성은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정체성 정치의 분석에 유효한 기반이 되었다. 정체성의 개념과 전제는 현실주의 이론가들에게도 수용되어 분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견해에 따른다. 그에 따르면 정체성은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자기 인식이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 속에서 찾고 재규정하는데, 이 정체성이 개인과 집단의 선택과 행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체성은 자기 인식이지만 타자와의 상호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산물이다.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다(헌팅턴 2017, 39-54).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은 하나이거나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정체성은 인종, 민족, 종교, 계급, 능력, 젠더, 성적 지향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며 타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중의 정체성은 상호 경합하는데, 다중의 정체성

중 수행되고 구사되는 정체성이 비로소 현실로서 소여가 된다. 따라서 정체성에는 권력과 배제가 수반되며 정체성 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Agius and Keep 2018, 5).

정체성의 다중성, 교차성으로 인해 정체성 정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뿌리내리기(rooting)와 전환(shifting)이라는 전략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체성은 행위자가 인식하고 수행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타자에게 인지되며 소여가 된다. 따라서 다중의 정체성 중 어느 정체성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 뿌리내린 정체성을 인정받고 소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권력 관계, 보편적 가치와 규범 속으로 어떻게 전환시켜 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유발-테이비스 2012, 232-234). 본 글에서도 뿌리내리기와 전환에 주목하여 ER이 어떻게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행하며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건립 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것이다.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 자체를 분석하기보다 소여로 다루거나 일본 사회에서의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와 자이니치 코리안의 권리 획득 운동 등 운동 차원의 연구(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2016), 국적과 민족을 주요 변수로 다룬 연구 등 내셔널리즘 차원의 연구(이지영 2018)가 주를 이룬다.

민족, 국적, 저항 등 내셔널리즘에 기반하여 소여로 다루어지던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 문제가 첨예화된 것은 전후 일본에서 출생한 자이니치 코리안 2세가 일제히 성인이 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이

다. 그 배경에는 언어 능력이나 문화적 전통 등 국가에 동화되기 위한 자원이 상실되었다는 것, 한반도의 2개의 정부와의 왕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조국과의 차이, 위화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 것, 일본 국내의 정치 상황이 고도성장과 더불어 기성의 가치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시대로 돌입한 것 등이 있다. 자이니치 코리안의 다양화와 자이니치 코리안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순한 내셔널리즘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자이니치 코리안으로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라는 정체성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논의를 이끌어간 것이 『계간 마당(季刊まだん)』(1973년~),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1975년~), 『창소리(ちゃんそり)』(1979년~) 등 자이니치 코리안 잡지이다. 일본 사회에 형성된 이와 같은 자이니치 코리안 논단을 통해서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 담론, 이른바 ‘자이니치론(在日論)’이 전개되었다. 자이니치론의 특징은 ‘이상적인 코리안’과 ‘실제의 자신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문제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 구사할 줄 모르는 모국어, 일본 학교에서의 교육, 일본인과의 결혼의 증가 등 자이니치 코리안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일본 사회로의 동화를 추진하는 예측성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이상적인 코리안’을 선형적으로 개념화하여 그 설정된 개념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가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 담론의 과제였다(金明秀 2017, 22-23).

일본 사회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하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코리안’이어야 한다는 ‘자이니치론’은 반드시 ‘실제의 자신들’에 대한 분석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실제의 자이

니치의 정체성을 분석하기보다 소여로 취급하거나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당위성 차원의 논의가 많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주요 대상도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 건너간 1세와 일본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2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자이니치 코리안 5세가 등장하고 그들의 생활권이 일본,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자이니치 코리안 1세, 2세의 ‘이상적인 코리안’ 담론을 넘어 실제의 정체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3세 이하 새로운 세대들의 정체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초로 1993년과 2013년에 전국 규모의 ‘재일 한국인 청년 의식조사’ 경년 연구가 이루어져 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일 한국인 청년의 민족적 정체성의 현황과 추세가 규명되었다(金明秀 2017, 21-40). 한편 자이니치 코리안 3세, 4세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체성에 관해 고찰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냉전 구조의 변질로 일본과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변화하고 동시대 감각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자이니치 코리안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밝혀졌다(川端浩平 2017, 41-64).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과 관련해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형성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은 귀국 열망과 귀국 불가능성, 조국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1세의 ‘유배자 정체성’에서, 일본에서의 삶이 현실이 되면서 남북한, 일본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귀국과 동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찾아 자이니치 문화를 창조하고 장려하고 보호하는 2세의 ‘자이니치 이데올로기’를 거쳐, 이제는 혼종의 정체성·다중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3세의 ‘탈식민’·‘탈자이니치’의 정체성으로 변화해 왔다고 주장한다(리 존 2019). 이러한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 변화를 3세 중심의 단체인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사례 분석을 통해 디아스포라 정체성으로 새롭게 규정하며 그 의의와 한계를 규명한 연구도 진행되었다(문재원·박수경 2011; 이상봉 2018)

본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자이니치 코리안 3세가 중심인 ER을 대상으로 ER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적, 인종, 지역의 경계를 넘어 탈경계적인 실천을 통해 정체성을 수행하며 기림비 건립 운동을 추진해 나갔는지 고찰할 것이다.

3. 연구방법과 분석 대상

본 글은 문헌 연구와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논술되었다. 심층 면접은 2019년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면접 대상자는 <표 1>과 같다.

에릭 마 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부교수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기림비 건립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제출했다. 줄리 수 샌프란시스코 여성위원회 위원은 역시 중국계 미국인으로 2009년부터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시가 힘을 기울여온 가정 폭력과 인신매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다. 손

〈표 1〉 심층 면접 대상자

대상자	면접 일시	면접 장소
에릭 마(Eric Mar)	2019년 7월 3일 오후 1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줄리 수(Julie Soo)	2019년 7월 3일 오후 4시	샌프란시스코 손성숙 자택
손성숙	2019년 7월 2일 오후 2시	샌프란시스코 손성숙 자택
러스 로(Russ Lowe)	2019년 7월 3일 오후 5시	샌프란시스코 손성숙 자택
김미호	2019년 7월 5일 오전 11시	엘세리토(EI Cerrito)의 엘세리토플라자 (EI Cerrito Plaza)
김현정	2019년 7월 11일 오전 11시	로스앤젤레스 리틀 도쿄(Los Angeles Little Tokyo)
스티븐 화이트(Steven Whyte)	2019년 7월 6일 오후 1시	카멜(Carmel)의 작가 스튜디오
오카 대신	2019년 8월 14일 오후 5시	서울역

자료: 필자 작성

성숙 사회정의교육재단(ESJ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버클리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후 캘리포니아주 이중 언어 교사로 활동했다. 현재 기림비 건립 운동에 이어 '위안부' 역사 교육을 위해 교사들을 위한 교재 편찬과 커리큘럼 제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러스 로 ESJF 사무국장은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의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중국계 미국인으로 아시아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가 2002년 한국을 방문,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과 수요집회를 접하면서 기림비 건립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미호 ER 대표는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자이니치 코리안 3세로 ER을 중심으로 미국은 물론 일본 내 단체들과 연대하며 초국적 인권 활동과 마이너리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현정 미국 위안부행동(CARE: 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 Education) 대표는 전 ‘가주한미연합’의 공동대표로 글렌데일시 소녀상 건립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집회 개최와 모금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모두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건립 운동을 주도한 17개 정상단체의 연합체 ‘위안부’정의연대(CWJC: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의 공동대표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밖에 스티븐 화이트 ‘여성 강인함의 기둥’ 작가, 오카 대선 ER 회원과도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스티븐 화이트는 영국 출신 백인 남성 조각가로 공공예술(public art) 활동을 해오다 ‘위안부’ 문제를 공공예술로 표현하고 싶어 캘리포니아주의 기림비 디자인 공모에 응모했다. 오카 대선은 자이니치 코리안 2세 아버지의 미국 유학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한 자이니치 3세이다.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대학교 재학 중 ER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인인 감독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다. 오카 대선은 현지 조사 당시 한국어 공부를 위해 유학 중이어서 서울에서 별도로 면접을 진행했음을 알려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로 진행되어 면접자들이 기림비 건립 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운동 전략, 운동 자원의 동원 방법,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기림비 건립 반대에 대한 대처와 난제 극복, 기림비의 공적·사적인 의의에 초점을 두었다.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건립 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운동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힐 뿐 아니라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정체성을 구현하고 그 결과 기림비 건립에 성공했는지 그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유효한 방법론이 면접, 구술사, 생애사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이다. 방법론의 핵심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분석의 핵심 대상인 ER의 김미호 대표와 오카 대선 회원의 경우는 그들의 구술을 통해 자이니치로서의 일본에서의 성장과 생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의 재이주 이후의 삶의 과정과 ER에서의 활동과 선택이 어떻게 기림비 건립 운동에 투영되고 영향을 미치며 자이니치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해 나갔는지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기존의 기림비 관련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해외 한인사회,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와 우파 단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져 왔지만 그 외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주의에 의해 그 존재가 만들어진 자이니치 코리안에 천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건립 운동에서도 ER은 재미 한인단체나 재미 일본인단체로 언급되어 ER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역사적 뿌리를 둔 자이니치 코리안 단체임은 알려진 바가 없다. 본 글은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건립 운동을 검토하는 최초의 분석으로서 정체성이 어떻게 운동에서 구현되고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견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4.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

1) 기림비 건립의 아젠다 설정

샌프란시스코 기림비는 처음부터 기림비의 형태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안은 난징대학살 추도비(이하 추도비)였다. 이 추도비 건립안을 제기한 것은 중국계 미국인이 중심이 되어 1990년대 중반에 발족한 ‘난징대학살 보상요구연맹(RNRC: The Rape of Nanking Redress Coalition)’이다. RNRC가 발족된 데에는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며 전면에 등장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난징대학살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인 1997년에 중국계 미국인 아이리스 장(Iris Chang)에 의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The Rape of Nanking』¹⁾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에릭 마, 손성숙 면접 내용). 특히 『The Rape of Nanking』은 자신들의 역사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잘 모르는 전후 세대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역사와 일본 제국주의에 관심을 갖게 했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能川元一 2016, 4-5). 약 20년 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온 RNRC가 샌프란시스코시의 공공장소에 추도비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6월 4일 RNRC의 줄리 탕(Julie Tang) 대표가 난징대학살

1) 한국에서는 2014년에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난징대학살 그 야만적 진실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만을 추도하기보다는 이슈를 확장해 범아시아 기념비를 제안하면서 이 추도비 건립안은 기림비의 건립안으로 전환하게 된다. 줄리 탕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데에는 샌프란시스코시의 까다로운 조형물 설치 기준이 작용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비롯해 각종 추도비,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어 샌프란시스코시가 공공장소에 조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조형물에는 공공예술로서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추도비도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가치를 표상하고 내러티브를 시각적으로 구현해야 했다(스티븐 화이트, 김현정 면접 내용).

RNRC 내에서 난징대학살의 중국인 희생자뿐 아니라 모두가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추도비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 논의의 중심에는 ‘위안부’ 이슈가 있었다. 전시하 일본군의 성폭력 희생자는 중국, 한국, 대만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태평양 국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ESJF 2018, 47). 물론 처음부터 RNRC나 중국계 미국인,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위안부’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의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미국 내의 기림비 확산 등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였다. 기림비 건립 운동을 주도했던 면접 대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다 이해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는 2011년의 1,000차 수요집회와 그에 관한 언론 보도였다(에릭마, 줄리수, 러스로 면접 내용). 한국의 수요집회는 정의 구현을 위한 로컬(local)의 실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

안부’ 문제를 발신하며 이슈화하고 공유하는 이른바 글로컬리티(glocality)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 2013년에 미 서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글렌데일시(The city of Glendale)에서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영향도 있었다(손성숙 면접 내용).

그러나 추도비가 기림비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었다. 미국에서 연이어 기림비 설립 논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2013년 5월 23일에 하시모토(橋本) 오사카(大阪) 시장이 ‘위안부 제도는 군인에게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에릭 마 의원, 줄리 수 위원, RNRC는 즉각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사카는 1957년에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 양 시에 자매도시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자매도시위원회가 시장의 상호 방문과 각종 교류 행사를 추진해 왔다. 당시 자매도시를 방문한 하시모토 시장이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회합을 갖자고 에드 리(Ed Lee) 시장에게 촉구했으나 에릭 마 의원 등과 RNRC의 반대 표명으로 에드 리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에릭 마, 줄리 수 면접 내용). 하시모토 시장의 문제 발언으로 RNRC 내에서 논의되고 있던 기림비 안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추도비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에릭 마 의원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인종, 민족, 문화, 지향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목적이 다양한 150개 단체를 일일이 접촉해 기림비 건립에 이해를 구하고 기림비 건립을 이슈화했다. 2015년 2월, 드디어 150개 모든 단체가 기림비 건립에 찬성을 표명하자 에릭 마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기림비 건립을 위한 결의안 원안 작성에 들어갔고 RNRC는 이를 지원하며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에릭 마, 손성숙 면접 내용).

2) 일본 우파의 반대 운동

2015년 7월에 결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고 7월 22일 전체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에릭 마 의원과 RNRC는 결의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고 일시가 공지되면서 일본 우파의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이를 일본 정부가 전면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청회에서의 상황은 기립비를 찬성하고 건립 운동을 전개해 온 당사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할 만큼 변했다(에릭 마, 줄리 수, 김미호 면접 내용).

샌프란시스코 기립비 반대 운동을 주도한 것은 일본 국내의 우파였다. 역사교과서 위안부 기술 삭제, 위안부 반대 집회, 소녀상 철거 요구, 모금 등 다양한 운동을 벌여온 일본 우파는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와 재미 일본인 ‘신 1세’와 연계했다. 재미 일본인은 이주 시기에 따라 1800년대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으로 도향한 이주민을 재미 일본인 1세, 그 자녀를 2세라 하는데 현재 4세까지 미국에서의 삶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1945년 패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을 ‘신 1세’라고 칭한다. 일본 우파가 ‘신 1세’와 연대한 이유는 대다수 재미 일본인 2세와 3세는 기립비 건립을 지지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기립비 반대 운동에 나선 일본 우파 단체로는 ‘논파프로젝트(論破プロジェクト)’, “위안부의 진실” 국민운동(慰安婦の眞実’国民運動), ‘나테시코2)액션’이 있으며 ‘신 1세’ 단체로는 ‘일

본재생연구회(日本再生研究会)와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The Global Alliance for Historical Truth)’가 있다. 일본 우파와 ‘신 1세’의 국경을 초월한 기림비 반대 운동을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와 신흥 종교단체 ‘행복의 과학(幸福の科学)’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그리고 오사카시와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했다. 초국적 일본 우파의 연대를 기반으로 기림비 반대 운동은 결의안이 상정되고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일본 우파는 ‘행복의 과학’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제공하는 회의장에서 ‘위안부’ 부정론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왜 기림비를 건립하면 안 되는지 주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반대 프레임을 구축해 나갔다.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는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해 위안부에게 보상하고 사죄했다”, “위안소는 일본만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의 역사와 더불어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 “위안부상은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종범죄를 유발한다”, “일본에서는 일본인 모두 위안부상 건립에 반대한다”, “위안부상 건립은 미일 관계, 동맹 관계를 저해한다”(山口智美 2016, 98-136; 리스 로, 김미호 면접 내용)는 반대 프레임은 조금씩 ‘신 1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들을 조직화해 나갔다. 일본 우파의 집회는 거의 일본어로 개최되고 집회에 관한 공지에도 일본어 밖에 사용되지 않아 재미 일본인 2세나 3세, 그리고 일반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이 집회

2) 패랭이꽃이라는 뜻의 일본어이며 전통적인 일본 여성의 미칭(美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나데시코로 기술한다.

에 대해 지지하지도 못했다(小山 ㄷ 2016, 51-52).

한편 일본 정부와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은 기림비 건립을 지지하는 재미 일본인 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조국을 배신하는가’, ‘기림비는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연계한 프로파간다이다’ 등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증액 등 경제적 보상을 거론하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 총영사관은 샌프란시스코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주요 위원, 그리고 시의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특히 오사카시의 기림비 건립 반대는 강력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공식적으로 반대 서한을 보내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 여성 리더로서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에도 관여해 온 샌프란시스코시 여성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지를 호소했다(小山 ㄷ 2016, 59).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은 유대인, 팔레스타인인, 흑인 단체 각각에 대해서도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과 추모비가 있으면 되지 다른 조형물이 더 세워지면 홀로코스트가 획득한 공공성이 약화된 다’, ‘팔레스타인인도 폄박받았는데 팔레스타인인 추모비는 없다. 그런데 왜 위안부상이 세워져야 하는가’, ‘흑인 노예 기림비도 없는데 왜 성노예라며 위안부상만 설립되어야 하는가’ 등 설파하며 인종 단체 간 균열을 조장하는 등 기림비 건립 운동의 연대를 해체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150개 단체가 찬성한 기림비 건립 결의안을 어떻게 해서든 지지하겠다는 일본 우파의 프레임 전략에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변화는 일기 시작했다(에릭 마, 김미호 면접 내용).

기림비 건립을 지지했던 ‘시민권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일본계 미국

인 연합(NCRR: National Coalition of Redress/Reparations)’과 ‘일본계 미국인 시민 협회(JACL: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전미 일본계 미국인 역사 협회(NJAHS: National Japanese American Historical Society)’, ‘일본계 미국인 종교 연맹(JARF: Japanese American Religious Federation)’ 등의 대표와 회원 가운데 기림비 건립에 회의적인 반응이 보이고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전체 공청회가 개최되자 ‘기림비는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다’, ‘기림비 때문에 일본계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였다’ 등 일본 우파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고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했던 일본계 미국인 단체들의 대표와 시의원들이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의 변화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에 RNRC는 기림비 건립 운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우려되었던 것은 인종, 민족, 젠더, 계급을 초월하여 형성한 연대의 약화였다.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RNRC는 기림비 건립 운동을 재정비하기 위해 범아시아 여성 연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계, 일본계, 필리핀계 여성들과 단체들을 기림비 건립 운동의 구심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ER의 김미호 대표와 일본계 여성 리더 시미즈 그레이스(Shimizu Grace), 필리핀계 여성 리더 주디스 미킨슨(Judith Mirkinson)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연대 형성에 참여했다(ESJF 2018, 49).

3) Eclipse Rising의 정체성 정치³⁾

(1) 자이니치 코리안에 뿌리내리기

김미호 대표는 이 새로운 연대를 ‘위안부’정의연대(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 이하 CWJC)로 명명했다. CWJC는 전체 공청회 이후 2015년 9월 3일에 발족되었는데, 발족 당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공동 발기인 김미호 대표는 성노예가 적합한 표현이지만, ‘위안부’는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을 철저하게 국가와 남성의 시각에서 ‘위안’이라고 표현하며 여성을 전쟁의 수단, 성적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젠더 의식을 담지한 역사적인 용어로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호 대표는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한국 국적과 본명을 유지한 자이니치 코리안 2세 아버지의 교육 아래 성장한 3세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한국 국적과 본명은 김미호 대표를 괴롭힘의 표적이 되게 했고 김미호 대표는 중학생 시절부터 심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해야 했다. 의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피신하듯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오게 된 김미호 대표는 단기 유학을 마치고 일본 학교로 돌아가려 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국 자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정규 학교 교육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다시 미국으로 건너온 김미호 대표는 샌프란시스코에 정주하게 되었고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과 일본, 한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초국적 인권 활동

3) 이 절은 김미호 대표와의 심층 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가로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김미호 대표는 그러한 자신을 자이니치 코리안으로 규정한다. 미국 사회에 이주한 이주민으로서 인권 활동가로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한국계 미국인, 때로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자신을 이야기했던 시기도 있었다. 자이니치의 역사적 형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기도 번거로웠고,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에 대해 잘 모르는 다인종, 디아스포라의 국가 미국인들에게 자이니치 코리안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미호 대표는 인권 활동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면 할수록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가’라는 정체성 문제에 늘 부딪혔다. 김미호 대표는 미국 사회에서 평화, 인권, 권리 운동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야 운동하는 가운데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고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가’라고 하는 운동의 방향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은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도, 분단된 한반도의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 애매한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그 때문에 자이니치는 국가로는 수렴될 수 없는 취약한 존재로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안정된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에 정주한 것뿐이지,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미호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미 한국인, 재일 한국인, 재미 일본인도 아닌 자이니치 코리안에 뿌리내린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뿌리내리기는 ER의 오카 대선 회원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오카 대선의 아버지는 재일 한국인 2세 연구자로 미국의

장학금을 수여받아 유학하게 되었고 유학 중 오카 대선이 출생했다. 그러나 공부를 마칠 즈음 아버지는 일본에서의 자신의 성장 과정과 삶을 돌이켜 보며 돌아가면 오카 대선을 차별 당하지 않게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적자로 자이니치가 무엇인지 몰랐던 오카 대선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일본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지만 돌아갈 공동체는 없는 존재가 자이니치라고, 자신을 그러한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인식한다. 제일 한국인 2세인 아버지와는 달리 미국에서 출생해서 교육을 받고 성장 과정에서 차별의 경험이 없는, 아버지의 말하기와 그에 접하기 전에는 자신이 자이니치라고 자각하지 못했던 오카 대선도 자신의 정체성을 재미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이 아닌 자이니치 코리안으로 규정한다(오카 대선 면접 내용).

김미호 대표와 오카 대선 모두 한국에서의 삶이 없다. 경험으로서의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이니치 코리안에 정체성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인종,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미국 사회에서 귀화나 동화는 꼭 자이니치 코리안의 종말을 암시하지 않는다. 실체로서의 민족, 경험으로서의 국가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결정하는 구조적 특징이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민족은 정체성 형성에 상징적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으며 상상할 수 있게 된다(리존 2019, 277). 그렇다고 이들이 말하는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이 앞선 세대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일하지도 않고 ‘이상적인 코리안’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김미호 대표나 오카 대선의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은 유연하고 변화에 열려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은 역동적이고 생생하다.

김미호 대표는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흑인 활동가로부터 “그래도 미호는 피부색이나 외모가 일본인과 구별이 안 되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좋지 않아?”라거나, 또 어느 때는 티베트의 활동가로부터 “한국은 해방되었고, 한국의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잖아? 우리보다는 그래도 나은 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 입었고 운동에서 함께 할 자이니치 코리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같은 자이니치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2008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몇몇 자이니치 코리안 3세가 모여 자이니치로서의 비전을 함께 하고자 ER을 발족했다. Eclipse Rising에는 자이니치 코리안인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구 일본 제국의 잔재를 조금씩 소멸시켜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김미호 대표는 ER이 출신, 국적, 언어, 성적 지향성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을 자이니치 코리안으로 인식하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했다. 제일 한국인 1세는 일본어를 못한다고 차별받았고, 2세와 3세는 한국어를 못한다고 차별받는다. 언어, 국적, 민족적으로 자이니치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를 만들고 싶었다고 김미호 대표는 말한다. ER의 자이니치 인정은 한민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앞 세대가 겪었던 그 어려운 위치에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벽을 쌓고 부인하는 시선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리 존 2019, 286).

그러한 ER의 목표는 모든 차별에 대한 사회 정의, 자이니치 코리안 커뮤니티의 발전, 남북한 통일의 세 가지이다.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건립 운동에 참여하게 된 ER에게 있어 ‘위안부’의 부정은 역사의 부정이다. ‘위

안부' 피해의 원인이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므로 '위안부'의 부정은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이니치 코리안의 형성 역시 '위안부' 피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에 원인이 있다는 것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우파의 '위안부' 부정론은 자이니치 부정론으로 자이니치의 정체성은 역사적 정체성이다. 이러한 ER의 역사적 정체성이야말로 국가, 인종, 계급, 젠더의 차이로 분단되고 분열되기 쉬운 기림비 건립 운동에 다시 차이를 넘어 연대를 재구성하는 활동을 구조화하는 기반이다.

(2)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에서 전 지구적 가치로의 전환

ER은 이러한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식민 지배의 피해자성을 넘어 범세계적이고 동시대적 규범과 가치인 사회 정의로 전환시켜 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샌프란시스코가 다양한 이주민의 도시이고 진보 정치의 지역이며 인권, 환경,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초국가적 연대의 구성 능력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도시로, 그리고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이동하는 이주의 시대에 국가를 초월하여 전 지구적 규범을 통해 시민권은 재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시민권과 장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권은 국가 내에서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완전한 성원권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시민권, 귀속, 정체성, 권리는 지역화된 맥락에서 작동하고 정의된다(Lyon 2018, xviii).

FBI의 보고서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13개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이 샌프란시스코 시정의 목표가 되었다. 2013년 에드 리 시장은 인신매매 테스트포스를 설치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ER과 CWJC는 유대인 단체, 팔레스타인인 단체, 흑인 여성 단체 등에 '기림비 설치하는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서나 아시아의 '위안부' 피해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현재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림비는 인권 문제에 관한 차세대 교육을 위해, 그리고 인권 문제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리스로, 줄리수, 손성숙, 김미호 면접 내용).

한편 ER은 '탈 식민지화를 지향하는 미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FeND: Japan-U.S. Feminist Network for Decolonization)'와 함께 분열의 조짐이 보였던 일본계 미국인 단체들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한 학습회를 개최했다. NCRR, JAACL, NJAHS, JARF 등은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 미국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해 왔지만 '위안부' 문제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ER과 FeND는 일본 우파 단체의 반대 운동의 구조를 규명해 발표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들이 기림비 건립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샌프란시스코 거주 일본인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 일본 우파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직접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일부는 GAHT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일본 우파에 연계된 '신 1세'라는 것이 밝혀졌다.

논과프로젝트는 2014년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한국이

‘위안부’ 기획전 ‘지지 않는 꽃’에 50점의 작품을 출품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 후지이 미쓰히코(藤井実彦)가 2013년에 발족한 것이다. 논파프로젝트는 앙굴렘에서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의 전시를 했으나 결국 철거되었고 이후 논파프로젝트는 기림비 건립 등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위안부진실국민운동 역시 같은 해에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 단체로 출발했는데, 해외에서 기림비가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고문이자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일본 최대 우파 단체인 ‘일본회의(日本会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가세 히데아키(加瀬英明)가 주도하고 있다. 나테시코액션은 2011년에 발족되었는데, 야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 대표는 외국인 참정권 반대 운동을 기획했으며 ‘재일의 특권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했었다. GAHT는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운동을 추진한 ‘신 1세’ 메라 고이치(目良浩一)가 설립했다. 일본재생연구회도 메라 고이치 대표가 만든 단체로 ‘신 1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올바른 역사를 학습한다는 취지에서 난징대학살 부정론, ‘위안부’ 부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이지영 2019, 67-70).

이러한 내용의 발표회는 기림비 건립 반대로 돌아선 일부 일본계 단체들에게 기림비 건립 반대 운동이 실상은 일본 우파에 의해 조직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게 된 것이다.

2015년 9월 15일에 결의안에 대한 최종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다시 전체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하시모토 시장에 이어 새로 취임한 요시무라(吉

村) 오사카 시장은 에드 리 시장에게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샌프란시스코시와의 60년에 걸친 자매 도시 결연을 해소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일본계 언론이 이를 전하며 일본에서는 국민 모두가 기림비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ER은 일본의 간사이(関西)네트워크, 평화 단체, 여성 단체, 인권 단체들에게 일본계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ER의 호소에 호응하여 기림비를 지지하는 성명과 서한을 보내왔다. ER은 일본 내 기림비 찬성을 표명하는 102명의 시민과 37개 단체의 진정서를 전부 번역하여 공청회에 제출했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많은 일본인이 기림비 건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김미호, 손성숙 면접 내용).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은 이러한 ER의 운동 전략은 자이니치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 수행과 다언어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 능력은 CWJC의 연대와 일본계 미국인 단체뿐 아니라 일본 국내 단체들과 초국적 범 연대를 형성하고 기림비 건립 운동에 지지를 동원하는데 유효했던 것이다.

ER은 또한 기림비 건립 반대에 대항하고 기림비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 구축에 나섰다. CWJC 내에는 일본의 가해자성과 일본 비판,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는다. 일본을 처벌하려는 것도 아니다. 기림비는 정확한 역사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하며 아무리 막으려 해도 역사의 진실은 밝혀진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

이다’, ‘피해자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역사의 산 증인이다’, ‘모든 일본인이 기림비 건립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은 정의 연대를 해체시키기 위함이다’. ER의 이러한 프레이밍(framing)이야말로 정체성의 전환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자이니치 코리안의 차별, 피해자성을 넘어 인권과 사회 정의의 범세계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ER의 정체성 정치는 결의안 채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여성 강인함의 기둥’ 건립

2015년 9월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김현정 대표는 이용수 할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은 기림비 건립과 이용수 할머니 초청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어나갔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조형물 신설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 중 또 하나는 바로 재정 문제였다. 샌프란시스코시는 공공장소에 조형물이 신설되면 설치 후 향후 30년간의 유지, 관리비를 적립해 놓을 것을 요구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국계 미국인은 전체 주민의 약 1% 정도이지만 CWJC가 모금한 총액의 50% 가까이 충당했다. 특히 2012년 10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족된 ‘김진덕·정경식 재단’이 기여한 바가 크다(손성숙, 김미호 면접 내용).

이용수 할머니는 전체 공청회에서 증언했다. CWJC는 이 공청회를 ‘위안부’ 이슈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 결의안 통과와 기회구조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에 대해 일본 우파들이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였다’, ‘증언은 거짓말이다’라는 반대 의견을 연이어

〈사진 2〉 스티븐 화이트 작가



자료: 필자 촬영(2019/07/05)

개진하자 데이비드 캠프스(David Campos) 의원은 세 번이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청회는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진지하게 수용했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11명의 시의원은 에릭 마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 결의안에 찬성했다. 9월 22일 기림비 건립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샌프란시스코시의 공공예술을 담당하는 시각예술 위원회는 2016년 6월 21일 기림비의 디자인을 공모했고 11월 5일 스티븐 화이트 작가로 최종 선정했다. 스티븐 화이트 작가는 중국, 한국, 필리핀의 소녀 3명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서 있는 것을 김학순 최초의

증언자가 올려다보는 디자인을 고안했다. 물론 이 디자인은 작가 혼자서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시각예술위원회 선정 위원들과 CWJC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간 것이다(김미호, 김현정 면접 내용).

3명의 소녀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서 있는 디자인은 자매애와 전시 하 성폭력의 문제가 인류 보편의 문제임을 상징한다. 소녀의 표정은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이 특정 국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CWJC 내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녀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어 소녀의 표정이 고통에 찬 것이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작가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어리고 취약한 소녀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전후 남성 중심의 성규범으로 인해 조국에서조차 버려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속에서도 삶을 이어온 강인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3명의 소녀는 ‘평화의 소녀상’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소녀상의 언니 정도로 보이기를 바랐다. 김학순이 3명의 소녀를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기 때문에 과거를 찾아갈 수 있다. 김학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다시 마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래서 작가는 기림비를 ‘여성 강인함의 기둥’으로 명명했다. 증언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그 시간의 흐름만큼 투명성과 소통, 지지를 통해 김학순이 처음 증언했을 때보다 이 세상이 보다 더 정의롭고 나아졌기를 바란다며 작가는 그것이 이 기림비가 표상하는 예술로서의 공공성이라고 전한다(스티븐 화이트 면접 내용).

2017년 9월 22일에 샌프란시스코시의 기림비 ‘여성 강인함의 기둥’ 제막식이 열렸고 11월 22일 에드 리 시장이 기림비를 공공장소의 조형물로 받아들이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것은 고인이 된 에드 리 시장의 마지막 서명이 되었다. 2018년 10월 2일 요시무라 시장은 61년간 지속되어온 샌프란시스코시와 오사카시의 자매도시 결연을 해소하는 서류를 공식적으로 발송했다.

5. 나오며

지금까지 본 글은 샌프란시스코시 기림비 건립 운동을 자이니치 코리안 단체 ER의 정체성 정치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샌프란시스코 기림비는 150개 단체의 합의와 지지, 17개 정상단체가 발족한 CWJC의 인종, 민족, 국가, 젠더, 계급을 넘어선 초국적이고 범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건립되었다. 그러한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일본 우파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극복하고 연대를 재조직하며 기림비 건립 운동에 성공한 데는 ER의 역할이 컸다. ER은 자이니치 코리안 3세들로 조직된 단체로 자신들의 다중적 정체성 가운데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며 샌프란시스코시의 지역성과 진보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단체의 네트워크 속에 자이니치 정체성을 차별과 피해자성을 넘어 사회정의로 전환시켜갔다. ER은 정체성 정치에 있어 다언어 능력을 구사하며 기림비 건립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을 구축하고 일본계 미국인 단체뿐 아니라 일본 국

내 단체들과 연대하며 유연하게 기림비 건립 운동에 지지를 동원했다.

이러한 ER의 정체성 정치는 일본 사회로의 귀환과 동화, 전 세계로의 재이주가 자이니치 코리안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것이며 자이니치 코리안의 경험과 정체성은 결코 단일하거나 한민족에 수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다.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의 복잡성과 변화 가능성이야말로 한민족 담론에서 벗어나면서도 민족을 다시 상상하게 하며 21세기 탈경계의 시대, 글로벌화와 로컬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화의 시대에 자이니치 코리안의 역동적이고 생생한 삶이 영위되는 전제이다.

ER의 정체성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 본 논문은 심층 면접 방법을 사용했으나 면접 대상이 김미호 대표와 오카 대선 회원만으로 한정적이다. 깊이 있는 분석과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ER의 다른 회원과 ER 이외의 자이니치 코리안 단체로 대상을 확대해 보다 정치한 후속 연구를 이어나가며 본 논문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한다. ~~XXXX~~

참고문헌

- 김동엽. 2018. “기억의 표상에 담긴 지역성 연구: 필리핀 위안부 동상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8(3). 75-110.
- 김부자. 2017.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일본의 식민주의/남성 중심적인 내서널리즘과 젠더를 검토한다.” 『한국여성학』 33(3). 279-332.
- 리, 존. 2019.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탈식민 정체성』. 김혜진 옮김. 서울: 소명출판.

- 문경희. 2018. “호주 한인들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운동-‘코스모폴리탄’ 기억형성과 한인의 초국적 민족주의 발현.” 『페미니즘연구』 18(1), 47-92.
- 문재원·박수경. 2011.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공간과 정체성의 정치-KEY의 문화적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0, 213-234.
- 송진원·안병학. 2019.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나타난 시각 문화의 상징성과 사회적 기억의 확산.” 『기초조형학연구』 25(5), 239-250.
- 유발·데이비스, 니라. 2012. 『젠더와 민족: 정체성 정치에서 횡단의 정치로』. 박혜란 옮김. 서울: 그린비출판사.
- 윤지환. 2018. “기억의 초국적 이동과 이민자 집단의 정치: 미국 위안부 소녀상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1(4), 393-408.
- _____. 2019.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형성된 위안부 기억의 경관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3(1), 51-69.
- 이상봉. 2018. “해방의 언설로서의 디아스포라와 재일코리안의 실천: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2(1), 7-46.
- 이지영. 2017.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결 모색: 여성인권과 글로벌거버넌스.” 『일본학』 44, 77-103.
- _____. 2018. “트랜스border 민족주의와 재일한인 여성의 국적문제.” 『아시아여성연구』 57(1), 129-160.
- _____. 2019.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역사전’과 글렌테일시 ‘평화의 소녀상’.” 『일본연구』 81, 61-83.
- 장, 아이리스. 2014.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난징대학살, 그 야만적 진실의 기록』. 윤지환 옮김. 서울: 미다스북스.
-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편. 2016. 『재일코리안운동과 저항적 정체성』. 서울: 선인.
- 허성태·임영언. 2016. “일본정부의 위안부문제 인식과 동포사회의 공공외교적 대응 고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47, 159-176.
- 헌팅턴, 새뮤얼. 2017. 『미국, 우리는 누구인가』. 형선호 옮김. 과주: 김영사.

Christine Agius and Dean Keep eds. 2018. *The politics of identity: Place, space, discours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ESJF, 2018. *“Comfort Women” History & Issues*. San Francisco: ESJF.

Lyon, Cherstin, 2018. “Introduction,” in C. M. Lyon and A. F. Goebel eds. *Citizenship and Place: Case Studies on the Borders of Citizenship*. Lond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川端浩平, 2017. “ルーツと越境の現在-グローバル都市ソウルで生活する在日コリアンの語りから.” 山泰幸 編著. 『在日コリアンの離散と生の諸相』. 東京: 明石書店, 41-64.

金明秀, 2017. “在日コリアン青年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1993~2013年のデータを用いて.” 山泰幸 編著. 『在日コリアンの離散と生の諸相』. 東京: 明石書店, 21-40.

小山エミ, 2016. “アメリカ「慰安婦」碑設置への攻撃.” 山口智美 他. 『海を渡る「慰安婦」問題』. 東京: 岩波書店, 42-68.

能川元一, 2016. “「歴史戦」の誕生と展開.” 山口智美 他. 『海を渡る「慰安婦」問題』. 東京: 岩波書店, 1-40.

山口智美, 2016. “官民一体の「歴史戦」のゆくえ.” 山口智美 他. 『海を渡る「慰安婦」問題』. 東京: 岩波書店, 97-136.

山泰幸, 2017. “離散がもたらす生の諸相.” 山泰幸 編著. 『在日コリアンの離散と生の諸相』. 東京: 明石書店, 11-20.

Abstract

The Campaign to Build the Comfort Women Memorial in San Francisco and the Identity Politics of Zainichi-Korean

Lee, Ji Young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ellow

This paper focuses on the identity politics of the Zainichi-Korean group Eclipse Rising (ER), which campaign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omfort Women Memorial in San Francisco. The San Francisco Comfort Women Memorial was built through a transnational and global coalition called the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 (CWJC) that went beyond race, ethnicity, nationality, gender, and social class, which was launched by 17 summit groups and supported by 150 groups. ER played a major role in leading the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right-wing's systematic opposition campaign to weaken such solidarity. ER is a group organized by the third generation of Zainichi-Koreans who have rooted themselves on their identity as Zainichi-Koreans out of their multiple identities. Based on the locality and progressiveness of San Francisco, universal values, and their network with various organizations, the members of ER transformed the identity of Zainichi beyond victims of discrimination to actors of social justice. In terms of identity politics, ER's members used their multilingual skills to establish the framework for legitimizing the Comfort Women Memorial campaign and flexibly joined forces with Japanese-American groups as well as organizations in Japan to mobilize support for the Comfort Women Memorial construction campaign. ER's identity politics suggests that the return and assimilation into Japanese society followed by the re-immigration to other countries do not mean the extinction of

Zainichi-Koreans, but rather places them as diasporas, thereby expanding their identity. The task remains to deepen the analysis of the dynamic lives and identity of Zainichi-Koreans in the 21st century marked by trans-border movements and glocaliz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other ER members and other Zainichi-Korean organizations.

■ **Keywords:** San Francisco'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emorial, Zainichi-Korean, Japanese Right-wing, Identity Politics, Supranational Solidarity

투고: 2020/03/31 심사: 2020/04/21 확정: 2020/05/14